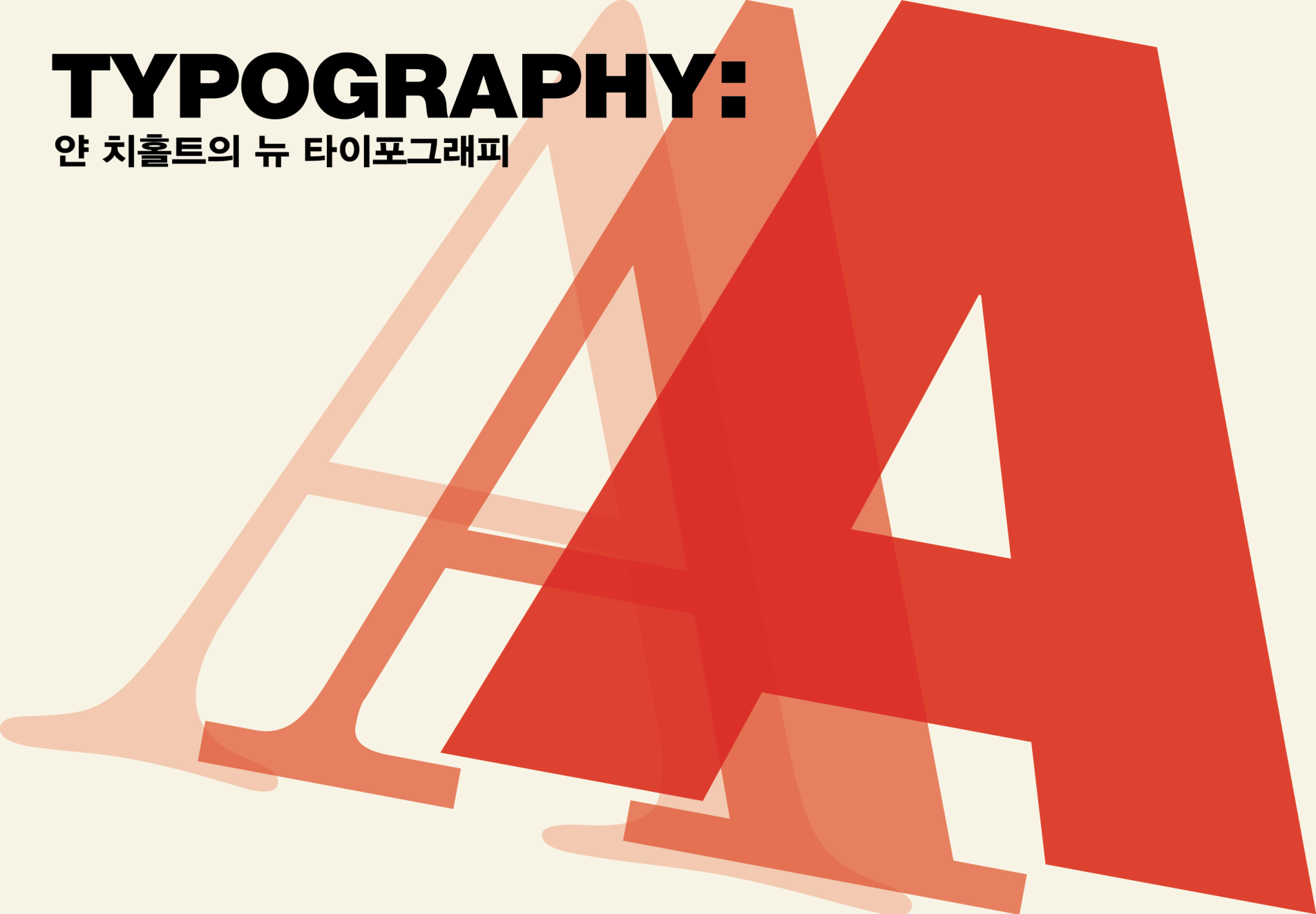


TYPOGRAPHY:

얀 치홀트의 뉴 타이포그래피



디자인 의도

- (1)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
- (2) 그래픽에 시선이 쏠려 제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
피드백을 받아 이를 개선했다.

알파벳 'A'를 각각 배스커빌, 보도니, 헬베티카로 나타내 올드한 세리프체에서 모던으로,
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를 상징하는 산세리프로 변화하는 것을 표현했다.
추상적인 도형은 뉴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삭제했다.
또한 제목의 크기와 굵기를 키워 부각했다.

내지 시안을 고려해 부가적인 장식 요소를 배제했다. 제목이 직접적으로 주제를
표현하고 있어 그래픽은 조금 추상적이어도 될 것 같다는 초기 컨셉은 그대로 유지했다.